

장자부인들 몸바뀌 비구로... 남편들도 출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7)

태종의 보살 마하살

부처님께서 나열성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보살과 4부대중이 모인 법회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다. 임신을 한 어떤 장자의 아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배 안에 있는 아이가 합장하고 경을 듣고 있었다.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큰 광명으로 장자의 아내를 비추셨다. 대중들이 모두 배 안의 여자 아이가 합장하고 경을 듣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이 선명했다. 부처님께서 여덟 가지 소리(八種聲)를 가지고 배 안의 여자 아이에게 물으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합장을 하고 경을 듣느냐? 부처님의 거룩함 때문이나?”

태아가 대답했다.

“세간 사람들이 모두 10악행을 하므로 저는 10선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간 사람들이 생사를 끊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에게 공양하지 않는 이유를 합장을 하고 경을 듣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는 이 말을 마치자마자 태어났는데, 마치 태자가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 땅은 여섯 가지로 진동했고, 허공에서는 저절로 하늘의 음악이 울렸다. 하늘의 꽃들이 비처럼 내리고, 수레바퀴만한 연꽃엔 천 개의 꽃잎이 달렸다. 여자 아이는 이내 연꽃 위에 앉았고, 제석이 하늘의 옷을 가지고 와서 여자 아이에게 주었다. 여자 아이가 말했다.

“그대는 아라한이고 나는 보살입니다. 그대와 나는 같은 무리가 아니므로 나오는 동류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는 따로 옷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이 여자 아이는 어느 나라로부터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 아이는 동남방의 부처님 세계 청정국(淸淨國)으로부터 왔는데, 여기서는 10만 부처님 국토(佛刹)만큼 펼쳐져 있다.”

문득 본국의 옷이 저절로 허공에 나타나면서 필력거렸다. 여자 아이가 날아온 옷을 입었더니 그 자리에서 5통을 얻었다. 여자 아이가 옷을 다 입고 나서는 곧 연꽃 위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 아이가 한 번 발을 들어 올리자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여자 아이는 땅에 엎드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 번 “나무불”을 외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좌중에는 장자의 부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원하오니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경을 말씀하시고 남자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 또한 너를 남자가 되게 하지 않았고 너를 여인이 되게 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행으로부터 얻었을 뿐이다. 빨리 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나 하면, 발심하여 보살의 도를 닦는 것이다. 또 여인의 몸을 안에서 스스로 가만히 살라 볼 것 같으면 마치 기관(機關)과 같아서

빠마디가 서로 받치고 있으면서 그 위에 힘줄과 가죽만이 덮여 있는 모양이다. 여인이 항상 남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두꺼비가 감히 낮에는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때에 좌중의 장자부인 75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부처님께서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원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내어 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약 남자의 몸이 되지 않으면 저희 들은 끝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75인의 장자들이 사위국으로부터 부처님게신 곳으로 와서 그의 부인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우리들의 아내를 잃어버렸구나.’

더니, 부처님의 신력으로 이내 허공으로 날아가서 있었다. 허공에서는 저절로 꽃이 생겨나더니 부처님 위에 꽃비를 뿌렸다. 부인들은 허공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아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원합니다. 부디 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서는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주어라.”

여자 아이는 저절로 변화하여 만들어진 꽃 일산을 가져다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다.

“부처님께서서는 바로 천상천하에 사람을 제도하는 스승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꽃을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천상천하의 스승께 일산을 올리면 이



삼화 · 강병호

사리불에게 물었다.

“이 여인들은 저희들의 아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리불은 대답했다.

“비구니가 되려 한답니다. 그대들은 허락하겠습니까?”

장자들은 대답했다.

“먼저 저희들부터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장자들을 제자로 받았다. 장자들은 저마다 손에 발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앞에 예배했다. 이때 75인의 부인들은 저마다 구슬 팔찌를 벗어서 모두 부처님께 공양했다. 구슬은 공중에서 저절로 75개의 구슬 휘장과 구슬 영락(瓔珞)으로 변했다. 그 휘장 안에는 칠보로 만든 평상이 있었고, 그 위의 자리에 앉으신 부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경을 듣고 있었다. 75인의 부인들은 이 변화를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

후에 어머니도 천하의 일산이 되실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또 말했다.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대답했다.

“내가 처음 너를 배었을 때에 꿈속에서 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을 보았기에 3독의 마음이 없어지고 몸이 안온했다. 나의 배 안의 아이가 바로 보살마하살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편안하고 고요했다.”

이때 보살의 마음을 내어 어머니가 꽃을 가져다 부처님께 올렸다. 그러자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천하의 별은 오히려 그 수를 알 수 있으나, 이 여자 아이가 전후에 제도했던 부모는 그 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태중녀청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⑰



소중한 이 시간...전쟁이라니!

전쟁이라니

요즘 한반도는 '전쟁'이란 말로 시끄럽다. 아니 이미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총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 남북이 서로 주고받은 일련의 입장들은 서로의 살점을 찢어내는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해야 꼭 전쟁은 아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고 주변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으니 사실상 '전쟁'이다.

어떻게 해서 찾은 평화며, 어떻게 해서 다시 일으킨 나라인가. 지금의 평화와 발전이 있기까지 우리는 안타까운 전쟁의 역사를 안고 살아야 했다. 말하기조차 조심스럽고 미안해야 하는 역사와 '오늘'이다. 이렇듯 어느 나라, 누구의 땅보다 소중한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라는 말이 떠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조들에게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손들,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며칠 전 서울에 올라갔었다. 함께 뉴스를 보던 외손주 원영이가 말했다.

“할머니! 진짜 전쟁 나는 거예요? 왜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우리 죽어요?”

시간은 금, 남은 시간 '보은'에 쓸 것

한반도에서 '전쟁' 다시는 안돼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정말 슬픈 대목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는 원영이와 같은 우리의 자식들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잃어야 했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아이 입에서 다시 '전쟁'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전쟁이 뭐냐고 물어보면 손주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다시는 전쟁의 화마로 희생되지 말아야 한다. 맘껏 뛰어놀며 힘차게 걱정 없이 잘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전쟁이란 말 자체를 몰라야 한다. 적어도 우리 한반도의 아이들은.

손주 원영이가 다시 말했다. “할머니, 전쟁이면 우리 할머니한테 가면 되지?”

불법에 꽃잎이 커지고 있다. 다시는 한반도의 한 가정 한 가정에 전쟁이란 단어가 쳐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북한에도 똑같이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남북'을 떠나 '정치'를 떠나 그 아이들만 생각해도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쓰는 일은 돈을 쓰는 일과 같다. 한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사는 것은 오백원, 천원, 만원, 지갑 속의 돈을 하나 씩 거

내 쓰는 일과 같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쓰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돈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의미 없이 써버린 돈처럼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왔다. 자식으로 살았고, 부모가 되어 살았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 살고 있다. 나는 몇 점짜리 자식이었으며, 몇 점짜리 부모였으며 몇 점짜리 할머니일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다 쓰고 다른 세상의 시간을 써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나에게 주어진 점수는 몇 점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얻기 위해 내 어머니는 산고를 겪어야 했고, 부족할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애쓰시며 키워주셨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 나가 살 수 있도록 지식과 교양을 가르쳐 주셨고, 부처님은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수많은 인연이 나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 많은 인연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바쁘게 말하면 많은 빚을 진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겐 과분한 것이다. 더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음은 정말 과분한 은혜다.

이 과분한 은혜들을 다 갚고 가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 나의 '시간'이란 지갑에는 이제 시간이란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많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서야 할 것 같다. 아껴 모은 금과 같은 시간을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쓰고 싶다. 그리하여 나의 인연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

무심한 봄바람

아파트 화단에 목련나무들이 하얀 꽃잎을 피우기 시작했다. 꽃잎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목련은 제법 많은 꽃을 피웠다. 그런데 다음 날, 봄비가 내리고 나서 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들을 떨어뜨렸다.

힘없이 떨어진 목련 꽃잎이 화단을 덮고 있었다. 활짝 핀 목련을 기대했는데, 속이 상했다. 봄비와 봄바람이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았다. 춥고 긴 겨울을 견디며 피워 올린 꽃잎 텐데, 나는 알 것 같다. 목련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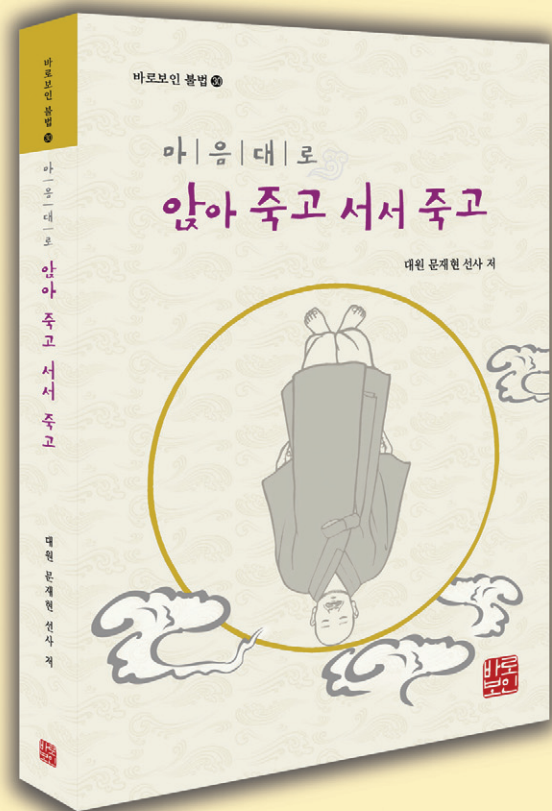
모든 것에는 시련이 끼여들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봄비가 내리지 않고 봄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목련은 더 많은 꽃을 피웠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우리고 생각지 못한 시련으로 힘들어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시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견뎌야 할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순간 한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부산 연꽃포럼회장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서는 불기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돌추지 말라고 하셨다. (주각)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금강경 10폭 (한정 100작품) 서예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50여년 서예 인생을 회향하면서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저렴한 보시금으로 드리하고자 합니다.



■ 금강경 10폭 (병풍 작품용)

크기 40×160 10장 금강경

- ※ 고급 케이스 포함,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크기 두종류 : 40×130(小), 40×190(大)

- ※ 고급 케이스 포함,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고급케이스에 넣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여 드립니다.



書峯書院

대전 중구 오류동 154-4번지 센트리아오피스텔 601호
문의 : 042)534-8248, 010-2426-8975
書峯 박준영 합장